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 (시편 135:1-21)

## Reason to praise the Lord (Psalm 135: 1-21)

시편 120-134편에 나온 15개의 올라가는 노래는 유대인 남자들이 3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135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강조한 시들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로 시작한 본시는 이 3개의 단어가 7번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Psalms 120-134 were fifteen songs of ascent sung by the Jewish men as they were ascending to Jerusalem for the three great festival seasons. And the following Psalms, chapters 135-150, emphasize that we must praise the Lord and worship Him. This Psalm starts with "Praise the Lord," a mere three words that appears seven times. Our entire life must be filled with these words, "Praise the Lord."

### 1. 찬송으로 초청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예배, 즉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입니다. 성도에게 여호와를 위한 그 어떤 일도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거나 긴급하거나 가치가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에 시간과 힘을 쏟고, 예배 자체는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시편 135편과 예배시로 알려진 다른 시들에 의하면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심성이 배부르지 못하고, 깨끗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며 깊은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1. An invitation to praise the Lord

The greatest work that all the people of the Lord are called to do for the Lord is worship, that is to say, 'Praise the Lord.' For Christians, there is nothing more precious, urgent, or valuable than worshipping and praising the Lord. You may be concentrating your time and efforts on matters secondary to worship. In the meantime, you must be careful not to neglect worship.

According to Psalm 135, as well as the remaining Psalms which are known as a liturgy of praise, we cannot say that we are worshipping the Lord if we have not been restored in conscience, if we have not been replete in our mind, if we have not lived an honest life, if we have not opened our minds to God, and if we have not sacrificed ourselves.

### 2. 찬송의 주제

하나님은 홀로 찬양 받으실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주제는,

- ① 하나님은 본래부터 선하시다
- ②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이다
- ③ 하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신다
- ④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이다
- 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시다

### 2. The theme of praising

Because God alone deserves to receive praise, we must praise Him.

These are the reasons why we must praise God:

- 1) God is by nature good.
- 2) God's love is a gracious choice.
- 3) God rules the natural world.
- 4) God's grace is continuous.
- 5) God's name is everlasting.

### 3. 이방인의 신들

15-18절은 이방의 무력한 신들과 참 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21C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다"(18절)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만든 것을 예배한다면 우리도 그것들처럼 무능하고 헛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 같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 3. The Gentile's gods

Verses 15-18 contrast the Lord who is the true God with the powerless gods of the Gentiles. In the 21st century, there are lots of foolish people who serve things that do not help us, do not save us, and amount to nothing. The psalmist says, "Those who make them will be like them, and so will all who trust in them" (v.18). If we worship the things that people have made, we will be powerless and become like the false things they are. However, if we worship God, thanks to His grace, we will be like Him, glorify Him, and please Him.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므로 그의 구속하심을 받고 영원히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My beloved christians!

The psalmist fears God, and advises those he knows to praise God. By trusting the only true God who lives forever,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be redeemed and find protectio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접수 중

## 모든 성도 한 과목 이상 수강토록

3월8일(월)부터 2010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일제히 개강한다. 열린 프로그램은 매학기 성도와 이웃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강의가 계속 되고 있다. 모든 성도들은 한 과목 이상 수강하여 자신의 영적 성장에 힘쓰기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받고 있다(등록비: 과목당 10,000원). 개강에 앞서 성경통독반은 통독사 교육을 3월4일(목) 오전10시30분, 602호에서 실시한다(문의: 문정훈 목사, 010-3470-2201).

강좌	개강일	시간	담당	장소
민수기반	3.8(월)	오전 10시	황광 목사	602호
갈라디아서반	3.9(화)	오전 6시	서명철 목사	602호
고린도전서반	3.11(목)	오후 7시30분	박종민 목사	602호
사사기반	3.12(금)	오전 6시	유문건 목사	602호
성경통독반	3.11(목)	오전 10시 30분	문정훈 목사	602호
교사양성반(주일)	3.14(주)	오후 3시20분	교역자 전체	609호
교사양성반(주중)	3.19(금)	오후 7시	교역자 전체	503호
교구일꾼양성반	3.14(주)	오후 3시20분	교역자 전체	607호
서울주부대학	3.9(화)	오전 10시	박종민 목사	601호
살롬경로대학	3.11(목)	오전 10시	서명철 목사	101호
세계선교대학	3.8(월)	오후 7시	장석남 목사	602호
마리아학교	3.11(목)	오전 10시 30분	김은숙 전도사	706호
영어성경공부반	3.13(토)	오전 11시	조슈아 조 목사	603호
서울음악교실	3.14(주)	오후 1시30분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	3.14(주)	오후 12시40분	한상은 목사	905호
수화교실 기초반	3.4(목)	오후 7시	임규현 목사	606호
전도학교	3.7(주)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906호
전도폭발 클래스	3.9(화)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603호
행복한 소그룹학교	3.12(금)	오전 10시 30분	장석남 목사	603호
전도폭발 Xee	3.13(토)	오후 3시	장석남 목사	603호

## 교회학교 교사헌신예배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리

2010년도 교회학교 교사헌신예배를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드린다. 김광신 장로(교육위원장)의 인도로 드리지는 헌신예배는 이강진 집사(대학부 부장)의 기도, 박현영 권사(유년부 차장)의 성경봉독, 전체 교사들의 찬양과 이종운 목사의 설교로 진행된다.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여하여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 2010년 2월 학습·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2월24일 수요일 1,2부 예배시 올해 첫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수요일 1,2부 예배시에 학습·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또한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학습·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9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종 세례관련 자료(기준자격, 세례일정, 교육과정, 신청절차, 신청별 문답지 등)는 최근 교회홈페이지(e공동체 내)에 개설된 “세례준비반”카페를 이용하기 바란다(로그인 필요). 금번 세례 / 개종 / 입교 / 학습 / 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 19명>

공경택 김민하 김영민4 김재경 김준수1 김지연8 김희연2 민경주 서숙자 엄효준 은다솔 이가람 이우리 정봉락 조영제 조준성 한송이 홍금미 홍석운

### <개종자 - 2명>

정해후 황정애

### <입교자 - 16명>

강수민1 김기은 김유진1 김진실 김환기 노상훈 박소영5 박수진2 송지혜 오승석 윤효라 이예린1 정호진1 주은교 진영준 최소영2

### <학습자 - 21명>

김경남2 김규욱 김설아 김종오 김 흥 나은미 박정숙2 오경식 윤덕훈 윤하나 이규호 이삼순1 이소윤 이해정5 임재중 임하나 전선경 정택영 조예은1 하혜빈 한혁수

### <유아세례자 - 3명>

배은찬 이태민 천수빈

총 61명

## 1·2스데반회 연합수련회 3월1일(월) 오전9시, 아가페타운

제1·2 스데반회 연합수련회가 3월1일(월) 오전9시 아가페타운에서 열린다. 이날 연합수련회에는 이종운 목사와 임상현 장로가 강사로 설 예정이다. 스데반회에서는 회원 부부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 나눔의 집 수익금 전액을 구제비로

제1권사회가 운영해 온 나눔의 집 수익금 1,000만원을 바친 미담이 있다. 교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물건을 그 가치의 고하를 막론하고 1점 당 1천 원씩 받고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구제비로 바친 것이다. 특히 목회자세미나, 김치세미나 참가자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은 나눔의 집은 계속 성도들의 물품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 나눔의 집을 수년간 운영해 온 김경옥 권사는 기쁨으로 봉사하니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성도들의 많은 기증을 기다린다.

## 청년1부 겨울수련회

### 2.28(주)~ 3.1(월), 아가페타운



청년1부 겨울수련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열망하라”는 주제로 2월28일(주) 찬양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하여 3월1일(월)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열린다.

이종운 목사를 비롯하여 박노철, 장석남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리게 되는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란다.



지난 2월 25일(목) 무지개어린이 합창단의 제 2회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3.1절 특별기고

# 삼일절, 한국교회에 바란다

3·1 독립만세 운동은 일제의 무단적인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온 세상에 알린 항일 민족운동이었다. 1910년 일제에 강제 병합된 직후부터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전개해 온 독립운동이 이를 계기로 마침내 폭발적인 대중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3·1 독립운동은 1919년 3월 1일 시작되어 근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다. 3·1 운동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전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 종교가 아닌 민족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박경수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대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이나 만세 운동으로 인해 체포되거나 투옥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유독 많았고 교회의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는 점은 3·1 운동에 교회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었

**3·1 운동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전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 종교가 아닌 민족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던 교회는 곧 독립운동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였고, 기독교인들은 망설임 없이 만세 운동의 선두에 섰다. 이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나의 단순한 정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신앙 운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교인들은 만세 시위를 벌이는 중에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성경본문을 읽으면서, 주일에는 금식하였다.

삼일절 91돌을 맞으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생각해본다. 1919년 당시 한국 개신교회의 신자는 장로교 16만 명, 감리교 3만 명을 포함하여 기타 작은 교단들까지 모두 합하여 20만 명 정도였다. 이것은 당시 전체 인구 2,000만 명

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이다. 불과 1%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 민족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고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고 등불이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지금 한국의 개신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20%에 근접하는 9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와 호감도는 크게 떨어져 있으며 반(反) 기독교 정서의 확산도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는 조사 결과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91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민족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가 덩치에 어울리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를 슬프게 한다. 91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민족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가 덩치에 어울리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00여 년 전 탐관오리들이 공직자로 부임하기를 가장 꺼렸던 지역이 바로 기독교인이 많은 곳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정직하며 올곧은 사람들이었는지 짐

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바라건대 오늘날에도 한국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기업에서, 시장에서, 정부에서 부정과 부패가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불평 아닌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기만을 바란다. 3·1 운동 당시 교회는 자신들만을 생각하여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민족의 현실을 부동켜안고 기도하며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오늘 한국교회도 내부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서, 밖으로 눈을 돌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민족의 영원인 통일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민족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3~14).



사순절 묵상

한마디 말씀

정병무 장로 (3교구)

“다 이루었다.”

한 마디 말씀  
그리도 하고 싶어  
피투성이 가시관  
그리도 쓰고 싶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못내 소리 지르며  
속죄양 되시네

골고다 언덕  
알알이 피어나는  
어린양 핏자국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나를 반기고  
하늘 보좌보다  
더 사랑한  
너와 나 아니런가

영원한 화목제를  
새 생명으로  
오시어  
천국 가는 영화의 길  
열어 주시네

하늘 가득  
글썩이며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민민에게 전도- 국군 간호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기독교생 졸업 및 임관 파송예배를 마치고

## 여호와와 우리를 지키시는 분

최임수 집사(3교구)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제 50기 및 육군 3사관학교 제 45기 기독교생도의 졸업, 임관 및 파송 감사예배가 지난 2월23일(화)과 2월26일(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다.

간호사관학교에서는 “승리의 시작을 위해서”란 제목으로, 육군 제 3사관학교에서는 “여호와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박노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간호사관학교에서는 졸업생 30명과 재교생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육군 제 3사관학교에서는 졸업생 350명, 재학생 600여명 등 모두 1,000여명이 참석하였고, 예배와 함께 자매결연식도 가졌다.

앞으로 이들은 야전병원과 육군의 전후방 각 부대에서 간호장교와 초급 지휘관으로 군 복음화의 최 일선에서 군

선교를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바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과 영천을 오가며 서울에 도착했을 시 밤 12시가 다되었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모습, 정말 서울교회 성도가 아니면 누가할 수 있을까?

군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 복음화된 통일 조국의 비전을 열어가는 비전 2020 운동에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졸업 및 임관 파송예배

☪ 전국시민양성 - 성경대학 개강을 기다리며

# 말씀의 떡



박길희 집사(13교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 하셨을까?” 6년전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씩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음~ 맞아!”감탄하며 재미있어하며 밑줄 그어가며 내 보물같은 성경책을 누가 빼어 갈까봐 가슴에 꼭 안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살 소망 없이 숨이 붙어있어 그냥 살아가는 저를 긍휼이 여기시어 베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내 삶에 등불이 되어주셨고 “아! 살길이 있다”는 한줄기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서울교회에서 해마다 계속 이어지는 일관된 프로그램이 있는 우리교회에서 3월에 서울 성경 대학이 열립니다. 서울 성경대학은 말씀을 깊고 세밀하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채워줍니다. 아침 10시, 새벽6시, 저녁7시의 다양한 시간, 다양한 성경강좌, 하나라도 더 가르칠려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고구마 캐면 즐기따라 고구마가 자꾸 나오듯 생명의 떡이 자꾸자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예비해두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하루하루 말씀을 먹으며 삽시다. 성령의 조명 따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며, 말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박경희 선생의 찬양으로 드린다

박경희선생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후 미국의 클리블랜드 음대에서 석사학위와 이스트만 음대에서 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후 활발한 오페라 활동과 오라토리오등의 독창자로 활동하는 한편 현재 연세대,이화여대,성신여대,숙명여대 음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오늘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의 2곡을 김수정선생(예루살렘찬양대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2월26일(금) 육군3사관학교 기독교 졸업생들과 함께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3월2일(화) 기독교 정치연구소(소장 황우여 의원)가 주관하는 기독교 정치인 및 지자체 출마자 모임에서 특강을 한다  
5일(금) 로잔 한국위원회 월례모임, 6일(토) 한국장로교 신학회 제15회 학술발표회를 소집한다.

- 대통령 포상: 박정선 장로(11교구) 녹조근정훈장
- 연주회: 박정선 장로(11교구) '박정선 합창음악의 밤' 3월2일(화)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T. 501-1330
- 이사: 이장로 성도 이현주 집사 가정 서초구 반포2동 18-1 레미안 퍼스티지 101-102 T. 533-2105
- 주간식당 봉사: 도르가전도회(2.28) 루디아전도회(3.7)
- 금주의 식사: 한준희 집사 이건희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전국시민양성 - 주부대학 개강을 기다리며

# Happy Day 주부대학



윤 윤 집사(3교구)

매학기 서울주부대학에 참여하는 화요일은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열강을 해주시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 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만남을 통하여 교제하며, 학창시절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학습과 영적 양식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며 생활을 선택

하게 하였습니다. 야유회, 독서, 기업탐방, 문화유적지를 찾아서, 영화감상, 생활영어, 오페라감상, 메이 크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활기를 더해 줍니다.

서울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로 더욱 활성화되고 뜻있는 문화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부대학을 기대해 봅니다. 3월9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회 601호에서 개강하는 서울주부대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2.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3.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 교회오시는 길

